

살리는 말을 하라

잠언 10:13-21, 야고보서 3:1-12

최정웅 목사님

요즘 하모니카를 배우고 있다.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온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잘 못 부는 것 같다. (웃음) 다른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도 없고 잘 안 되고 아코디언을 배워 보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잘 안 되더라. 그래도 하모니카는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그래서, 선생님께 배우고 있다. 오늘 '살리는 말을 하라'는 주제 아닌가? 이 선생님이 물어보려고 해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잘 했어요. 아주 잘 하시네요." (웃음)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한다. 할 때마다. 다른 곡을 하니까, "너무 잘 하셨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을 밝게 해서 이야기해주니까 굉장히 희망이 생기더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이 살리는 말을 하는구나.' 노인이 잘 해 봐야 얼마나 하겠다. 그런데, "굉장히 잘 하세요. 금방 배울 것 같아요." 희망을 주시더라.

서론 : 전도자의 삶 62가지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 62가지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누리는데, 그것이 삶과 연결이 안 되면 복음이 복음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삶을 너무 강조하면 복음이 힘을 잃는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 제일 먼저 21가지 근본에 대해서 배웠다. 갈보리산에서 구원받고,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충만을 받으면 다 끝난 것이다. 근본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 해답에서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1, 3, 8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1절이 그리스도, 즉 갈보리산이고, 3절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충만 받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세계 살리는 교회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 거기에서 언어지는 천명 소명 사명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할 일을 해야 한다. 꼭 필요한 일이 보인다. 그것을 하다 보면 절대적인 일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24시 하게 되면 25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늘의 은총을 얻게 되고, 영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다.

(2) 이 근본 21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57가지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3) 나와 관련된 사람을 살리는 97가지 흐름에 이르게 된다. 배려에 이르게 된다.
(4) 후대를 살리는 77가지 언약의 확인, 언약의 비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5)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207가지 전도전략, 전도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합치면 62가지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복음을 가지고 서서히 전진해나가다 보면, 그게 체험되면서 행복해지고, 체험되면서 삶에 변화가 오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굉장히 쉬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한다.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생명 살리기 위한 중심이 이 62가지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62가지 삶의 실천은 전도를 마음에 품는 것에서 전부 시작된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다. 오늘 우리는 잠언 곳곳에 있는 말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리는 말을 실천하도록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한다. 우리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다는 것이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있지 않나. 그 사람이 말을 한 마디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처음에는 잘 했다. 왕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빈다. 볼 때 능력이 없는데, "반드시 제가 갚겠습니다." 그 말이 가상해 보여서, "그래, 내가 탕감해 주마."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 일반 달란트다.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기분 좋게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났다. 일백 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다. 그 사람의 멍살을 잡고 왜 내 돈 안 갚느냐 하고 혼드는 것이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이제까지 못 갚았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감옥에 처넣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를 붙잡아왔다.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겠다.

1. 말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말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이다. 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의 의미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1)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성령충만하고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는 좋은 말이 나가는가, 못된 말이 나가는가?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나간다. 그

런데 악령충만하게 되면, 독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말을 자꾸 하게 된다. 마태복음 15:18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게 한다는 것이다.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

(2) 또 이 말은, 말하는 사람 자신과 듣는 사람에게 각인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에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봤지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게 그 사람에게 각인을 심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3) 그 각인된 것이 성취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민수가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두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신앙을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민수가 14:28에 말씀하셨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말인가. 그래서 잠언 18:20 이하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삶에서 보았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말이 정말 복음을 가진, 언약을 붙잡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의 그런 말이 되기를 축복한다. 요셉이 어떤 말을 했을까. 다니엘이 어떤 언어를 썼을까. 다윗이 어떤 말을 썼을까. 일곱 램넛트를 생각해 보면 명약관화해진다.

2.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말이 있다.

(1)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말을 해야 한다.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기 때문이다.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답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생각과 감정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각인되는 것을 우리가 뒤집자는 것이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자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계속 각인되어 왔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포인트를 바꾸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복음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하고 고백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을 고백할 정도가 아니고 계속 선포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란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이들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 주시며, 지금 내게 성령충만으로 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의 천사가 지금 동원되도록, 모든 저주 사탄의 권세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한다.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 즉, 복음 누리는 기도는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자신을 살리는 응답을 계속해서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2)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복음의 말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때부터 말 한 마디를 가지고 흑암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불신앙을 쫓는 믿음의 말인 것이다. 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다(요14:30, 요16:11). 그 사탄은 에베소서 6:16에, 불신앙의 불화살을 계속 우리에게 쏘아댄다고 했다. 이게 말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다. 앞에서 민수가 14장 이야기를 했지만, 열 정탐꾼이 내뿜은 불신앙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 60만에게 순식간에 전달되고 전염되었다. 모두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되었다. "우리가 가 보니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해 보니 메뚜기였다. 우리는 그들과 겨루어 싸울 수 없다. 우리가 절대 점령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했다. 그것을 듣고는 땅을 치고,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고 통곡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어떡하냐 하고 통곡했다. 그만큼 불신앙의 말은 확산이 빠르다. 이상하게도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빠르게 전파된다. 그런데 이 불신앙을 단번에 꺾어버렸던 말이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이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말만 나오면 불신앙, 불평의 말이라면, 전 교회가 불신앙의 교회가 되고, 그러면 망해 버리게 된다. 요즘 TV에서 너무 까발리고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불신앙의 말이 많다. 너무 참 안타깝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는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의 말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임한 저주를 순간적으로 꺾어 버렸다. 그 말 그대로, 10사람의 불신앙의 말은 수십만 명을 무너뜨렸지만,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말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고 미래를 살리게 했다.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그 두 사람의 말대로 되었다. 복음 가진 전도자의 믿음의 말에는 반드시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말하라. 선교사 클라크 박사가 일본을 떠나면서 일본 청소년들에게 말했다. 일본이 두 번의 원폭으로 인해 절망 속에서 처참

하게 망하게 되었다. 그 백성, 그 청년들을 향해서 외쳤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 희망을 가져라 하는 그 말이 일본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희망이 되었다. 믿음의 말을 하라. 불신앙을 던져 버려라. 불신앙이 나오려고 하면 조 선생, 조동이를 때려 막아야 한다. (웃음) 진짜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까지 망하게 된다.

(3) 세 번째 할 말이 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말을 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의 97까지 배려의 포인트다. 말 한 마디를 해도 위, 아래, 옆을 보면서 말해야 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는 것이 아니다.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서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상사가 힘을 얻고 부하들이 힘을 얻고 동료들이 힘을 얻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치유의 말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은 아니다. 내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성취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있다." 하고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 한 마디를 한 것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온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사건이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 정신적 고난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반대편의 계획과 역사와 뜻이 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선다면, 또 다른 나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4:11을 보니까,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라."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 어떤 분은 심방을 같이 가보면, 지금 암으로 누워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아프면 오래 못 사는데." (웃음) 이분을 괜히 데리고 왔구나 싶다.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웃음) 동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죽여 버린다. 차라리 셋 더 마우스. (웃음) 입을 닫고 있어야지. "권사님, 괜찮아요. 예수님은 문둥이도 깨끗케 하셨어요. 죽었던 자도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권사님의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늘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다음날 죽더라도 오늘은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오지를 말든지, 왔으면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웃음) 이번 심방에도 그런 말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웃음) 어떤 집에 가 보면 집이 너무 좋다. 못 사는 대원이 이리저리 휘둥그레져서 쓰다듬고 만지고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티를 내면 곤란하다. 천국 가면 훨씬 좋은데. (웃음)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면 내가 창피하다. (웃음) 오늘 치유받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멘? (웃음) 골로새서 4:6에도 말씀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잘 못 부는데, "목사님은 너무 잘 부시네요.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웃음) 그래야 돈도 잘 벌 것 아닌가. 남도 좋고 자기도 좋은 것이지. 그런 분이 집집도 잘 갈 것이다. 못생긴 얼굴에다가 인상까지 쓰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도와주는 말, 살리는 말, 배려하는 말 한 마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전해야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되더라는 말이다.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사모님은 늘 웃으면서 "최 선생 왔어요?" 하셨다. 그 웃으면서 하시는 말 한 마디가 내게 얼마나 힘이 되던지 모른다. 잠언 15:23에 말씀했다.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절망, 실망, 낙심을 준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홉 가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다.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농군학교를 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 "나는 여덟 차자가 있는데, 머느리와 사위들까지 다 와서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선생을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밥을 해 주기도 한다. 식당에서 밥을 하는 머느리는 이 화여대를 나온 분이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보다 내가 훨씬 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꿈은 3층 집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사는 것인데, 나는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으니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도 싶었다. 한번은 머느리가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 저에게도 돈을 좀 주세요." "어디에 쓸 데가 있느냐?" "아버지가 호주로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니 현금도 대포로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손으로 하나님 앞에 현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는 장로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더라. "그래, 알았다." 그래서 돈을 주고 봤는데, 예배시간에 그 현금봉투를 들고 예물을 드리는 머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쏟아지더라고 한다. 하나님께 내 손으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구나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모습에 자기 고개가 끄덕여졌다고 한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란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말을 하고 전도자의 행동거지를 하시기 바란다.

3. 어떻게 해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1) 말은 자기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생각과 마음부터 치유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각인된 것을 바꿔야 한다. 내 속에 이미 들어가서 박혀 있는 그것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과 각인을 먼저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잠언 10:19에 말씀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다. 요즘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사회가 너무 어지러워진다. 살리는 말을 하라.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았다면 일단 말을 좀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불평, 불만으로 가슴이 타오르는 사람은 입을 재봉틀로 꿰매 필요가 있다. (웃음) 이놈의 입 때문에 망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그래서 먼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한다. 복음메시지, 강단메시지, 그 메시지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계속 들으면 각인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응답도 받게 되고 삶에 변화와 활력이 임하게 된다. 전에 과천교회 여름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 전기 시설이 잘 안 돼서 원고도 안 보이는 곳에서 밤에 설교를 하니가 힘들더라. 3일을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 했더니, "우리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이 꺼져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메시지 하셨던 것을 녹음한 여섯 개의 테이프를 출퇴근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한 여섯 번 듣더니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메시지는 다르다.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가 내가 행복해지더라.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살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2) 특히 조심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잠언 18:8에 말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라. (웃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전부 그런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계속 하는데, 그 사람도 똑같다. (웃음)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는데, 그래서 판사, 검사들도 사형을 언도하고 무기징역을 언도하고 그러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한다.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데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독주를 마신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잠언 27:2에는, 스스로 칭찬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다. 자기만 잘 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핑장히 기분 나쁘게 한다. 복음운동의 문을 막는다. 잠언 곳곳에 이런 힌트가 곳곳에 나온다. 이번에 잠언 묵상하면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3)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캠프를 가 보라. 다락방을 해 보고 따라가 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계속 말하게 되고 듣게 된다. 미션 홈, 지교회 가 보라. 세상 가면 절망의 말, 남 욕하는 말만 듣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포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복음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복음의 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응답방기를 축원한다. 예배 끝나면 바로 가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는 이런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시다." 하고 포럼을 나눠 보라.

결론 : 살리는 말의 결과

말씀을 마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

(1) 잠언 10:20에,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고 했다. 말을 통해서 영육간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2)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잠언 10:11에 말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된다." 생명운동이 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3)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제자운동을 할 수 있는 문도 열린다. 잠언 10:21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역하게 된다."고 말씀했다.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게 되는 의인의 입술이 얼마나 위대한 입술인가.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다락방을 열면서, 참여하면서, 미션 홈, 지교회, 캠프에 참여하면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잠언 15:1에 말씀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복음이 체질이 안 되면 과격한 말을 가지고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장을 살릴 수 없다. 반대로 복음이 누러질수록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 이 온유한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그 사모님의 말을 들으며 교회를 가고 싶어졌듯이, 듣는 사람 마음에 '참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이렇게 희망적인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게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시편 19:14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주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悅(悅)되는) 전도자의 말을 유순하게 하다가 우리 모두가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말을 좀 순화시켜야 한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다. 우리 모두가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한 주간, 남은 생애 살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말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했는지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충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며 살리는 말을 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현장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